

2024 KFRI Conference 성황리 개최

식품연구원, 산·학·연·관 한데 모여 식품분야 협력 방안 모색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지난 10일,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 혁신적 연구와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2024 KFRI Conference"를 한국식품연구원 인계홀에서 개최했다.

'KFRI Conference'는 식품 분야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로 2022년에 첫 시작되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식품연 백현동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석 교수의 '식품 과학 및 산업을 위한 맛'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본 세션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기술사업화 전략'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인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에서는 △푸드테크·산업표준과 표준화의 역할과 전망(식품연 김병호 전문위원), △맛인

지 디지털전환: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식품연 김민정 선임연구원), △뇌 신호를 이용한 식품의 예측 모델(식품연 임만열 연구원) 발표로 푸드테크와 디지털 전환이 식품산업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다뤘다.

두 번째 세션은 기술사업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에서 공공기술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문택 전북본부장)을 공유하였고, △국내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특허법인 다나진회동 변리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협력을 강조하

였다.

이번 2024 KFRI Conference는 식품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과 논의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연 백현동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4 '방한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

전은, 창립 55주년 기념 2024 '방한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4 '방한(warm) 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외이웃들이 한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병규 회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및 노조간부 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은행은 총 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자체와 협력해 복지사업에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은행 제6기 신입행원 등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40여명은 백워머, 귀마개, 방한조끼, 담요, 장갑, 화팩방석 등으로 구성된 '방한(warm) 키트' 920상자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오래된 친구처럼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직원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올해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지역재무지평가에서 도내 은행 유일의 최우수 등급 선정,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을 바탕으로 내내에도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의 생존 위한 ESG 활성화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발전협회, 중소기업 ESG 활성화 ·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 방안 모색

11일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회의 경제분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우석대학교 ESG국가정책연구소,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전주시와 전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 구축 및 ESG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낮은 인식, 비용 부담,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응책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문제로 꼽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 ESG 경영으로 시작(지용승 우석대학교 ESG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사례발표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사례 (씨엔와이더스 조대형 대표이사)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강진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승수 식품산업플러스센터 진흥원 전략기획부

장 △조정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지원부장 △강동오 (사)전주중소기업인연합회장 △김동훈 지리산한티(유)대표이사 △신유정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정락 본부장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공정개선 지원사업 등을 소개, 중소기업 ESG 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을 이야기 하였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올해 4월 '전주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선관위,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10일 4층 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 및 15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적의 선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선거관리 △불법선거 근절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확산 등 각 분야별 관리방안을 시달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는 선관위에서 최초 의무위탁 관리하는 선거로 '돈 선거' 척결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불법선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12일 오후 2시 전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은 입후보 설명회 참석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진협 전북-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 전문건설 활성화 간담회 가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현황과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전하고 지역전문건설 보호·육성과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임근홍 회장은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호남지역 국토교통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청장님과 이하 업무담당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며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직접시장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전문공

사의 발주를 우선 검토해줄 것과 상호시장 진출 관련하여 종합공사 발주시 부대공사의 개념과 등록기준 충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 전문공종을 최소화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기회복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전문건설업 발주확대 및 지역전문건설 활성화 및 보호·육성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인권존중 '윤리·인권 주간' 운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기념하고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NPS 윤리·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윤리·인권 주간은 공단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공단은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윤리·인권 온라인 퀴즈 이벤트, 인권 염서 만들기 등 재미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권 도서전 및 인권영화 소개 행사를 통해 인종·아동·장애 등 다방면에 걸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단 주관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시설을 순회하며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스토킹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에는 인권 문화제를 개최하여 인권 도서 저자 강연 및 인권영화 상영을 통해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도 실시하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NPS 윤리·인권 주간 행사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인권존중문화 정착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